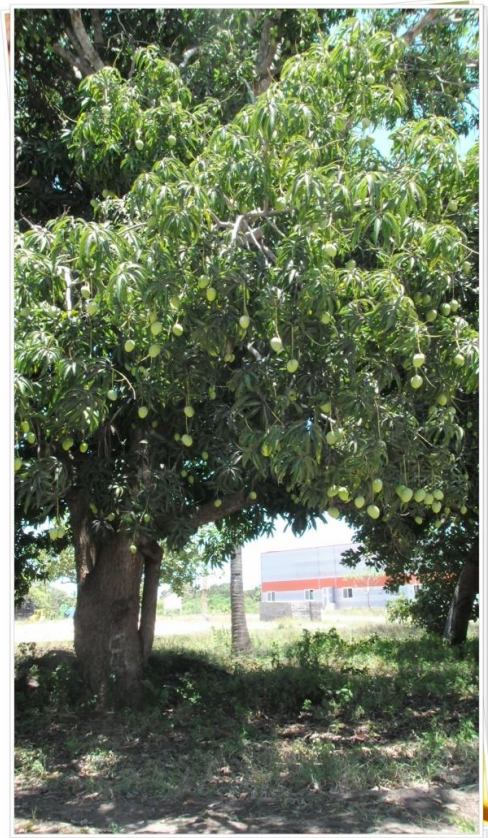


살롱~!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한국엔 때 이른 추위가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탄자니아는 1년 내내 여름이라 ‘추위’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이제 소우기가 지나고, 바야흐로 망고가 한 트럭으로 쏟아질 때가 왔습니다. “탄자니아 망고를 먹어보지 않고, 망고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뭇까지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1. 시험

지난 10월 11일 동신 기술학교 2학년 학생들(2010.9 입학)이 *Qualifying Test(QT)를 쳤습니다. 시험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매일 풀게 해서 시험감각을 익히게 했습니다. 탄자니아에 기출문제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서점에 가니까 QT 문제를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모아놓은 책들이 벽면 한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도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시험치는 전 날 시험시간(오후 2시)보다 이른 오전 10시 30분까지 시험장 근처에 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날 두 명의 학생이 약속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오지 않아서 마음을 엄청 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두 명 모두다 시험시간 전에 와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13명의 학생들이 다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시험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모두 다 합격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중·고등학교 과정은 6년으로, Form1에서 Form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으로 한국 중학교 1학년 과정을 Form1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Form2와 Form4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국가시험(Qualifying Test)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기숙사 이전

지난 9 월 학교에서 걸어서 10 분 거리에 있는 집을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집은 6 개의 방과 2 개의 다목적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4 명의 학생들이 방 하나씩 사용하고 있고, 2 개의 다목적실 중 하나는 공부방으로, 다른 하나는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축구 시합

지난 주에 옆 중학교와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유니폼과 축구화를 빌려와서 그럴듯한 모양은 갖췄습니다. 걸모습만 아니라 실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정확한 패스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옆 중학교를 2:1 로 이겼습니다. **공식적인 첫 승리!** 그리고 목공선생님 한 분이 골키퍼로 참여함으로써 축구경기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Daily Life

1. 장티푸스 감염

학교 앞에서 현지 음식을 겁 없이(?) 2 주간 먹다가 장티푸스에 감염됐었습니다. 한 달 전 새벽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복통과 멈추지 않는 설사로 인해 거의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큰 병원으로 가서 장티푸스 검사를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검사되는 한 면적에 320 마리의 장티푸스 균이 발견됐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감염 최고치가 340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주사를 5 일에 걸쳐 맞았습니다. 고가의 주사와 주위 선교사님들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동거

지난 9 월부터 UAUT 대학 부총장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부총장님께서 뛰어나신 요리솜씨로 맛있는 음식을 자주 해주셔서 제 입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께서 제 가냘픈 몸을 보시고 제가 한국 들어가기 전 까지 지금보다 4kg 더 찌우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성공여부는 미지수입니다.....아무튼, 잘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귓전에서 맴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라고 답하니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두 번 더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가시 전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매번 고백하지만 정작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무관심한 저를 보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한낱 외침이 되지 않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감격과 기쁨을 되찾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동신 기술학교 인가가 속히 날 수 있도록.
2. 성실하면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과(English, Kiswahili) 선생님이 구해지도록.
3. 후임 단기선교사가 12 월 전에 와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4.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길 수 있도록
5. 선임 선교사님들을 비판하지 않도록